국가사회주의의 기본 원칙

잭 엘티스의 원작 글
과거 백호주/국가사회주의 네트워크 소속이었던 뉴사우스웨일스 주
지도자



국가사회주의와 우리 인민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목차

국가사회주의를 한 페이지 이내로 설명하기

국가사회주의는 근본적인 진실, 즉 혈통이 운명이라는 진리의 정치적 표현이다 . 진정한 국가는 이념이나 시장, 혹은 무작위적인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종 공동체이며, 공통된 조상, 역사, 문화, 그리고 공유된 미래로 묶인 민족이다. 이 혈통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 창의성, 그리고 힘의 원천이다.

국가사회주의에서 "국가"는 인종 주권을 확언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조국은 오직 우리 민족의 것입니다. 우리는 대규모 이민을 통해 민족의 혈연관계를 단절시키고 외부인이 우리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시민적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거부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우리 혈통에 대한 충성에서 시작됩니다.

"사회주의"란 문화, 경제, 법률,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결정이 사회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는 인류 전체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는 계급 투쟁을 부추기고 거짓된 평등을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이윤과 돈을 국민의 복지보다 우선시하는 자본주의도 거부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오히려 인종 공동체 내에서 완전한 계급적 단결을 요구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혈연으로 맺어진 인척이며 결코 적이 될 수 없다.
경제, 국가, 그리고 모든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사유재산과 자유기업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경을 수호하고, 가정을 강화하며, 경제적 자립(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약화시키려는 모든 세력을 제거합니다. 지도력은 우리 민족 중 가장 뛰어난 자, 즉 인격과 의지, 헌신이 강한 자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체 시스템은 자연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힘이 승리하고, 위계질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유능한 자가 성장하여 전체를 발전시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또한 우리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요구하며 ,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유능해야 합니다. 가족은 이러한 미래가 탄생하고 양육되는 신성한 토대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인종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며 , 규율, 단결, 그리고 민족에 대한 봉사를 요구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하며 더욱 높은 차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사회주의 내의 민족주의에 대하여 설명

국가사회주의에서 민족주의는 국가가 인종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통된 혈통, 조상, 역사, 그리고 미래 운명으로 묶인 민족입니다.

이는 '국가'라는 단어의 어원과 일맥상통하는데, '국가'는 인종, 부족 또는 민족을 의미하는 라틴어 'natio' 에서 유래했습니다.

진정한 국가란 단순히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땅에서 살고, 일하고, 지켜온 민족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NS는 우리 민족이 인종적 공동체이며, 우리 민족의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땅에 대한 인종적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피는 우리의 정체성, 문화, 힘, 그리고 존재할 권리의 근간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은 우리의 피에서 비롯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우리의 피에 대한 충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규모 이민과 다문화주의를 통해 혈연관계를 단절시키고 외국인이 결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자유주의적 "시민 민족주의"를 거부합니다.

혈통이 없는 나라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국가는 무엇보다 우리의 혈통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혈통이 뿌리내리고 하나로 뭉칠 때, 나라는 존속하고 번영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당신의 국민이다."

우리 인종은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될 모든 것의 살아있는 토대이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 내 "사회주의"의 의미와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국가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란 모든 결정이나 행동이 전체 인종(그리고 국가)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종 집단이며, 우리 인종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문화, 법률, 정치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정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과 행동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계는 운영에 있어 우리 인종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즉, 우리 인종을 독살해서는 안 되며, 우리 인종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인 산업을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항상 이분법적 관점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정책이 인류 전체에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 이 정책이 우리 민족 전체를 발전시키는가, 아니면 퇴보시키는가?

히틀러식 사회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의 실천이나, 산업과 지주에 대한 노동자 봉기, 또는 "모두가 평등한" 환상적인 평등 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개인을 존중합니다. 인종적 천재성과 창의성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며, 우리 민족의 혈통이라는 집단적 풀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시장은 존중받고 번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그 산업들이 인류(그리고 나아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연법

자연법이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자연 그 자체의 법칙이며, 거짓, 왜곡, 이념 또는 전복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때 모든 생명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자연 법칙은 강함이 약함을 이기고, 유능한 자가 무능한 자를 이기며, 모든 생명 체계에는 위계질서가 내재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위계질서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강한 자가 이끌고, 적합한 자가 살아남으며, 재능 있는 자가 창조하고, 인류는 이러한 자연선택을 통해 발전합니다.

자연 속 모든 생물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끊임없이 싸운다. 자연은 평등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노력, 그리고 적응력을 보상한다. 이러한 법칙을 거스르는 종은 약해지고 결국 멸종하게 된다.

국가사회주의는 자연법을 모든 진정한 질서의 기초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뿐입니다.

우리 인류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끌고, 건강한 자가 번식하며, 유능한 자가 이끌어갑니다. 이는 잔혹함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때, 우리 인류는 더욱 강하고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평등을 인위적으로 강요하고 약자를 지탱하기 위해 강자를 처벌하는 자유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현재 자연의 섭리가 완전히 뒤집힌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말기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통해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에게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며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자연에 반항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은 결국 반항을 바로잡기 때문입니다.

학급 단합 vs 학급 분열

국가사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또 다른 점은 계급 분열이 아닌 계급 단결 이라는 전제입니다 .

국가사회주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완전한 계급 통합을 요구합니다. 계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유층, 중산층, 귀족 등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사회 내 계급은 불가피하며 자연의 질서에 따른 결과입니다.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타고난 적성, 지성, 능력을 갖춘 사람들, 즉 우리 인류 최고의 인재들이 건전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정상에 올라야 합니다.

같은 혈통으로 묶인 계층 간의 화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민족이며, 서로 싸우는 것은 국가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종 공동체로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계급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동하려 하는데, 이는 분열을 조장하고 인종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국가의 통합과 결속을 저해합니다.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분열과 같이 인종적 단결을 깨뜨리려는 모든 시도는 국가 전복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무엇보다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가 인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 생산, 무역은 모두 인종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윤을 인민의 복지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경제 체제는 우리의 존재에 적대적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상품으로, 국가를 시장으로 보고, 둘 다 착취하기 쉽고 언제든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 여깁니다. 자본주의는 끝없는 성장, 값싼 노동력을 위한 개방된 국경을 요구하며, 임금을 낮추고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부추깁니다. 토지를 투기 자산으로 만들어 우리 국민들이 집과 가족을 잃고 쫓겨나게 만듭니다. 뿌리 없는 국제 금융에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국가.

돈이 최우선 목표가 되면, 경쟁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자본주의자들에게는 돈을 더 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우리를 빚의 노예와 인구 대체라는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끝없는 소비를 강요하는 체제입니다. 민족사회주의는 인류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돈.

피 대신 금을 숭배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고리 대금

고리대금은 특히 터무니없이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스스로 생산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차용자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고리대금을 근본적으로 기생적이고 해로운 세력으로 간주하여 거부합니다. 고리대금은 생산적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돈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신 국민으로부터 부를 빼앗는 무기로 만듭니다.

고리대금 제도 하에서 빚은 일종의 노예제도가 됩니다. 차용자는 이자를 갚기 위해 끝없이 노동해야 하는 반면, 대출자는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무한한 수익을 거머쥡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뒤집는 것입니다. 강하고 생산적인 자들이 착취당하여 비생산적인 자들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직한 생산이나 사회에 대한 봉사가 아닌, 빚을 통해 국가를 지배하는 금융 투기꾼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경주.

고리대금은 본질적으로 복리 효과를 냅니다. 부채가 클수록 이자는 더욱 커지고 복리로 불어나 결국 국가에 자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부채가 끊임없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고리대금은 자유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줄입니다. 중앙은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며,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떠넘깁니다. 그 와중에도 금융 계층은 모든 거래에서 이익을 취합니다. 이는 인민을 상대로 한 경제 전쟁입니다.

반면, 국가사회주의는 돈과 신용이 인종과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은행업이 국가와 인종에 종속됩니다.

대출 이자는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기생적인 착취가 아닌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독일 나치당(NSDAP)은 국제 금융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신용을 국가 재건과 자급자족에 집중시킴으로써 이를 입증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이러한 기생적인 고리대금 제도에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고리대금의 독을 거부하고 우리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한 경제 체제로 대체할 것이다.

고리대금은 다른 이름의 절도입니다. 우리는 고리대금을 없애겠습니다.

금융 투기

투기란 주식, 토지, 주택, 원자재 등의 자산을 생산하거나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국가의 발전이나 개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창출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투기를 건전한 경제를 파괴하고 인종에 해를 끼치는 독성이 강한 기생적인 세력으로 간주하여 배척한다.

자본은 공장을 짓거나, 식량을 재배하거나, 가족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는 대신, 단기적인 재정적 이익을 쫓습니다. 투기꾼은 위험을 거의 감수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과장, 공포 또는 시장 조작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투기는 또한 자연의 법칙을 뒤집습니다. 투기는 교활한 기생충에게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보상을 줍니다.
만들다.

오늘날 호주에서 주택 투기는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택을 차익 실현을 위한 자산으로 여기고 되팔면서, 젊은 백인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늦추고 출산율을 낮추며, 우리 국민들을 막대한 평생 빚에 시달리게 하거나 임대 생활을 강요하여 결국 인구 구조적 붕괴를 야기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투기적인 부의 착취 수단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보금자리로서 인종 전체에 봉사해야 합니다.

독일 나치당(NSDAP)은 토지 투기를 비롯한 불로소득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나치당은 증권거래소를 엄격히 규제하고 투기적 거래를 제한했으며, 자본을 생산적 자급자족과 재무장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투기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근거 없는 금융 세력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모든 경제 활동이 인종 공동체에 봉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자산은 가족의 주거, 산업 건설, 식량 및 에너지 확보와 같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금전적 이득을 위한 투기 대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로소득 제도를 거부합니다. 주택과 토지는 삶을 영위하고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윤 추구를 위한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는 생산적인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투기를 금지하고 자본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문제

노동조합은 파업, 태업, 산업행동 등을 통해 임금, 근로조건, 분쟁 등에 대해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하는 노동자 조직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자유주의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을 거부합니다. 노동조합은 계급 투쟁을 제도화하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국가를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눕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인종 공동체보다는 국제적인 전복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분노, 사보타주, 그리고 혼란을 조장합니다.

그들의 파업은 생산을 마비시키고, 인종에게 해를 끼치며,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국가를 약화시키려는 마르크스주의적 목표를 진전시킨다.

국가사회주의는 노동자가 국가 기관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모두 같은 혈육이며 결코 적이 아닙니다.

독일노동전선(DAF)은 분열적인 노동조합들을 계급 갈등을 없애고 모든 독일 노동자를 단결시키며 공동의 국가적 목표를 향해 노력을 집중시키는 단일 국가 주도 기구로 대체했습니다.

DAF는 복지, 교육(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기쁨을 통한 힘'이라는 여가 활동(휴가)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조건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파괴적인 파업, 사보타주, 분열 없이 국가가 감시하고 시행한 결과였다.

모든 불만 사항은 국가에서 처리합니다. 국가는 전체 인종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생산성, 공정성 및 노동자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분쟁을 중재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투쟁》에서 발췌: "국가사회주의 노동조합은 계급 투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같은 피로 묶인 모든 생산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조합의 임무는 조합원들에게 민족 공동체 의식을 교육하고 다가올 국가 존립 투쟁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국가사회주의는 생산에 있어 완전한 인종적 단결을 요구한다. 우리는 계급 분열이나 전복을 위한 어떠한 수단도 거부한다. 노동자는 인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받고 존엄성을 지켜야 하며, 결코 동족을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를 위한 봉사로서의 리더십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지도자는 민족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는 민족에 대한 봉사와 의무감으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민족을 발전으로 이끌고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지도자는 우리 민족의 혈통에서 우뚝 솟은 재능 있는 인물로, 강인한 성품, 의지, 지성, 그리고 충성심을 지닌 자이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능력, 그리고 민족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다. 그는 민족의 의지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내재된 약점과 결함을 거부합니다. 즉, 대중 통치와 책임과 책무가 희석되고 모호해지는 의회 제도, 그리고 말만 앞세우고 타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의회 제도를 거부합니다.

나치 지도자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히틀러는 "권력은 아래로 흐르고 책임은 위로 흐른다"라고 말했다. 지도자는 모든 결과에 대해 민중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을 발전시킬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고 약해지며 쇠퇴할 것입니다.

국가는 인종을 섬긴다

우리는 지도자가 인류의 종이며, 인류를 영원한 발전과 번영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같은 원칙에 따라 국가(정부) 또한 인류의 종입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인민의 주인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 즉 국가가 통치하고 이끄는 살아있는 인종 공동체를 보호하고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의지를 조직적으로 구현한 도구이다. 지도력 원칙에 따라 권위는 아래로 흐르고 책임은 위로 흐른다. 국가는 우리 국민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결정, 모든 법률, 모든 행동은 동일한 NS 이분법적 관점에서 평가된다. 즉, 이것이 우리 민족의 혈통에 부합하고, 우리 민족을 강화하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아니면 우리 민족에게 해로운가?

국가는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국경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조성하는 정책을 통해 우리의 혈통을 보호합니다. 또한 경제를 자급자족 방향으로 이끌고 외국 자본의 착취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의 단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분쇄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국가를 거부합니다. 자유주의 국가는 국가를 모두에게 개방된 국경 없는 시장으로 취급하여 외지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뿌리 없는 자본이 우리의 힘과 자원을 고갈시키도록 방치합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우리 민족의 수호자이자 발전의 주체입니다.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이렇게 말했다 :

"국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동질적인 생명체 공동체의 보존과 발전에 있다. 이러한 보존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국가는 해당 인종과 그 발전 및 보존을 위해 봉사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권리가 없다.

경제적 자급자족: 국가의 자급자족

경제적 자급자족이란 국가적 자급자족과 경제적 독립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해당 인종 공동체가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식량, 에너지, 원자재, 공산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해외 무역 및 국제 금융/세계화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거나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자급자족을 인종적 주권의 근본 요소로 규정합니다. 경제는 오직 인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뿌리 없는 자본가들을 부유하게 하거나 우리를 외세에 취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급자족은 우리 민족이 굶주림, 제재, 협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고리대금업과 국가를 해치는 투기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합니다. 생산을 우리 민족에게 종속시킴으로써 우리는 국가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자연의 법칙(강한 민족은 스스로를 온전히 유지한다)에 부합하며, 미래의 어떤 투쟁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상호의존성과 세계화를 숭배합니다. 개방된 국경은 값싼 노동력의 유입을 부추기고, 외채는 여러 세대를 노예로 만들며, 수입품은 적대적인 공급국의 횡포에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그 결과, 국가는 약하고 착취당하기 쉬운 경제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급자족은 언제나 "가장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필수적이며 규율, 혁신, 그리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독립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스스로의 생산을 통제하는 인류는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하는 인류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유일한 이익은 오직 국가의 이익뿐이며, 오직 한 가지 견해만이 독일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100%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사회주의는 외부 세력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고 자급자족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국제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은 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가족은 국가를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가족은 우리 민족의 가장 작고 자연스러운 단위이며, 인류가 태어나고 양육되고 계승되는 요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천재, 모든 지도자, 모든 창조자, 예술가, 그리고 우리 민족을 발전시키는 모든 강인한 남녀는 모두 가족에서 나옵니다.
핵가족은 혈통이 이어지고, 가치관이 주입되며,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처음으로 학습되는 곳이다.

튼튼한 가정은 튼튼한 아이를 낳습니다. 튼튼한 아이들은 자라서 튼튼한 나라를 만듭니다. 약하거나 깨진 가정은 전체 인종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가족을 모든 것의 근간으로 여깁니다. 건강한 백인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을 최고의 소명으로 칭송하며, 가족을 퇴폐로부터,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그리고 남녀의 자연스러운 역할을 훼손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합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는 인종적 유대감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착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려 합니다.

국가는 인류의 봉사자로서 우리 국민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가정을 꾸릴 의무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가족은 국가의 핵이다"라고 말했다.

가족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근본부터 쇠퇴한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각 가정에 달려 있다.

영원한 승천: 다가올 인간

국가사회주의는 단순히 우리 민족의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더 높은 존재 상태로 끌어올리고 발전시키려는 영원한 열망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백인 유럽인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본질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거의 불가능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해 왔습니다. 백인들의 탁월함은 세계에 수많은 혁신과 발명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이러한 백인들의 본능을 법제화합니다.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정치 교리로 승화시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기여하는 모든 것은 우리 후손, 즉 다가올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와 우리의 혈통을 모두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철학은 국가사회주의와 건전한 사회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국민의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업적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체나 퇴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모든 세대가 교육 수준 저하, 적성 및 능력 저하,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에 시달리는 하향세를 보이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건설과는 정반대되는 행태이며, 오히려 다른 모든 세대를 희생시켜 한 세대만을 부유하게 만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영원한 발전을 요구한다. 다가올 인류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현명해야 한다. 그러한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나아갈 길: 호주의 국가사회주의와 세계적인

국가사회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가장 규율 있는 방식으로 집단화와 조직화를 추구해야 한다.

사상적 토대와 교육 단계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직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가장 훌륭한 면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위계적이고 능력주의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조직화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 운동이 성장하고 체제가 탄압을 강화함에 따라, 국가사회주의자들은 활동가들을 투옥할 기회를 체제에 주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 운영 방식에 있어 적응력, 다재다능함, 전술적 능력, 그리고 지능적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노련한 국가사회주의 조직가들은 이 모든 모델을 활용해야 합니다. 행동주의, 거리 시위, 그리고 "부족과 훈련"을 표방하는 활동적인 클럽들은 이상적으로 하나의 응집력 있는 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구조.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조직화 수단이 없을 경우 나치즘적 의회주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부추기거나 암시하는 사람은 누구든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즉시 당신 곁에서 멀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모델이 아니라, 비록 일부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더 효과적일지라도 그 자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회주의의 조직화와 중앙집권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화된 선봉대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노력하는 사람들, 확고한 의지와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